

#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1-10)

이 순 배  
(서울 대봉 교회 목사)

양은 야생 동물에 비하여 목자 없이는 일시도 자생(自生)할 수 없는 사육 동물이다. 숙명적으로 자기 생명을 유지하거나 외부의 천적을 방어할 수가 없는 동물이다. 그러므로 이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하여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고 그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하셨으니 참으로 그러하시다. 그러면 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가?

### 1. 출입을 가리키는 문이다

솔로몬 대왕이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전에 주께 고한 말씀 중에 “주여, 나는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왕상 3:7)고 하였거니와 이는 연소한 솔로몬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모두가 길 잃은 양과 같고(사 53:6) 올바르게 출입할 줄 모르는 철부지한 어린아 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그릇 가기 쉬운 인생 길에서 이 길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견게 될 때처럼 안전한 길은 세상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

버지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 하셨다. 이 세상에 길이 많고 문들이 많으나 좁은 이 길, 좁은 이 문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아니한 것은 넓은 길, 넓은 문들이 많기 때문이다(마 7:13-14).

이 인생 길을 위하여 위대한 철학자나 유능한 정치가도 많고 성공 사례나 유능한 가르침도 많다. 그러나 인생 길의 미로에서 헤메다 기진맥진한 나를 이끌어, 참 삶의 길로 친히 인도하시는 이는 없다. 가르침보다, 설득보다 더 앞선 것은 내 영혼이 소생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영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즐거이 따를 수 있는 목자이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 분이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세주 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다. 이 분은 우리 연약을 항상 함께하시는 분이시다(마 28:2).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 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분이시다(사 42:1 이하). 100 마리 양

에 길 잃은 한 마리를 위하여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찾아 구원하시고 그 기쁨을 이웃과 같이 나누는 선한 목자이다(눅 15:4 이하).

## 2. 안식을 보증하는 문

자연인으로 혹은 정치가로서, 사업가로서 많은 행위가 있고 그에 대한 칭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양의 문으로 들어오고 이 문에서 나간 것이 아니면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오로지 이 문으로 말미암는 자들만이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시 127:3).

이 문은 안식하는 처소를 상징하는 문이므로 “나는 양의 문이니”(7~)라고 하셨다. 눈에 보이는 양의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주님이 계시는 곳이면 안식이 있는 것이다. 장소를 초월한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곳이면 양의 만족한 안식처가 되는 것이다. 이 안식은 양의 문이 되신 주께서 양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하신다(9~). 그래서 양들은 꼴을 먹고 새김질을 즐긴다. 주께서 자기의 양을 앞서 인도하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른다(4~).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따르지 않는다.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계 3:20) 절대하신 하나님과 상대적인 교제를 유지하며 육신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는 것이다(벧전 4:2).

주 안에서의 안식으로 말미암아

윤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10~). 안식이 없으면 음식 소화도 안 되는 것이며 보호자되시는 주님이 없으면 그 영혼이 초조하여지고 찬양도 감사도 안 되는 것이며 삶 자체가 초라하게 된다. 그러나 있는 자에게는 더욱 주신다(마 13:12)고 하신 말씀대로 안전한 배경을 의지함으로 영혼이 윤택한 인생을 살게 된다. 양으로서 털이 무성하게 자라고 젖이 풍성히 나며, 어린 양을 많이 생산하게 될 것이다. 목자를 따르는 어미 양은 많은 새끼양을 거느리게 된다. 목욕탕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고 각기 쌍태를 가진 양(아 4:2), 털 깎인 양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양이 없지만 주님은 매우 감탄으로 보시는 것이다.

## 3. 이 문은 양을 보호하는 문이다

세상은 문 없는 곳을 말한다. 문을 지키는 보호의 영역이 없는 곳은 속고 속임이 있으며, 죽고 죽임이 있는 곳이다. 그러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목자가 지키는 우리 안에는 세상이 유린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 8:1) 주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정죄할 자가 없는 것이다. 전에 죄의 종이 된 것 같이 이제는 의의 종이 된 것이다(고후 5:14). 그에 의해서 나가고

그에 의해서 들어가며 그에 의해서 먹고 마시니, 그에 의해서 보호됨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뿐만 아니라 이 문은 열 때나 닫을 때가 있는 것이니 적이 올 때 닫기도 하지만 불법으로 방종할 때 주께서는 닫으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자유가 주어졌으나 그 자유를 죄를 짓는 데 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벧전 2:16).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듯이 이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이 마음에도 문이 있어서 열고 닫음이 정확하여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마 5:37)의 정확을 기하게 되는 것이다. 잘못 용납하면 한 마리의 여우가 온 포도원을 헐고 많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흔히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다(아 2:15). 구약 성도들이 목자이신 주님을 사모하여 노래한 시편에서 주의 궁전을 사모하는 갈망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시 84:10), 내가 주의 궁전을 사모함으로 내 영혼이 쇠약하나이다(시 84:2).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시 119:131). 이와 같이 고백하며 다시 아뢰기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하였으니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세파 속에서 목자이시며, 열린 다윗의 문이신(계 3:7) 그의 힘이 얼마

나 크게 역사하셨음을 성경은 충분히 우리로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끝으로 인생을 바로 살기 위해 이 문을 출입함으로써 삶의 바른 기획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앉아서 준공하기까지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눅 14:28)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또한 강한 일을 위해서는 충분한 힘이 먼저 요청되는 것이다. 군인도 내일의 전투를 위하여 오늘의 충분한 안식과 영양 공급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겹세 마네의 영적 확고부동의 확신을 위하여 무장이 필요한 것이다. 영력의 추적, 영적 강력함이 없이 큰 일을 도전할 수 있겠는가? 기도에서 얻는 영적 힘 말이다. 골리앗과 싸워 승리를 얻기 전 다윗의 충만한 영감 속에서 골리앗은 이미 죽은 것이었다.

문이신 그리스도는 승리의 보장이시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시 110:1) 하셨다. 마귀가 발에 밟히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사탄은 이미 죽은 것이다(고전 15:57). 주 안에 있으면 이김을 보장 받고 있는 것이다. 예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이다.